



# 기초 양계 강좌 (육추편)

오 세 정  
<전대 축대 교수>

## 육 추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먼저 중요시 할 것은 육추 시기의 결정과 품종의 선택·구입이며, 다음이 사육에 대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육추 시기와 품종의 선택이 잘못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영 소득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1. 육추 시기를 결정하는 요건

육추하는 시기는 직접 육추 성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계가 된 후 생산 능력과 경영 소득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 결정하는 요건을 살펴 보면,

#### (1) 자연적인 기후 조건

봄(3,4월)과 가을(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이 좋다. 겨울에는 보온에 힘이 들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환기가 나빠 육추에 곤란을 느낀다. 그러므로 일기가 온화하며 건조한 봄과 가을을 선택하는 것이 육추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발육율이 좋고 질병이 적다.

#### (2) 목은 닭의 갱신 계획

현재 알을 낳고 있는 닭은 언제부터 도태하며 갱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처 계획에 맞도록 육추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정된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영면으로 유리하며, 능력이 저하된 닭은 하루 속히 도태하고, 시설의 공간 또는 여유가 생기면 즉시 보충하여 재실율(在實率)을 높이는 것이 수입의 증대와 연중 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은 닭의 도태율(월별)과 경제적 수명에 따르는 갱신 계획에 의거하여 육추 시기와 수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산란수의 영향

초산 후 시산(始産) 1년간의 산란수를 높여려면 3월말부터 4월 초순에 육추하여 9월에 초산시키면 당년에 털갈이가 없이 다음 해 계속 산란을 지속할 수 있다. 만일 6~8월에 초산시키면 10월에 가서 부분적이거나 털갈이를 하게 되어 산란수가 감소된다.

### (4) 알값으로 본 육추 시기

알값은 대개 3~4월에 가장 떨어지고 9~10월 사이가 연중을 통하여 가장 비싼 때이므로 이 시기에 많이 산란시켜 수익을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12~1월에 육추하는 것이 좋다.

### (5) 기타 조건

노력·시설·병아리값·발육율·육성비·질병 관계·난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런 것들은 2 차적인 것이다.

## 2. 육추 적기와 횟수

부업 또는 겸업으로 양계를 경영하는 사람은 1년에 1회 육추하는 것이므로 12~4월까지의 사이를 택하는 것이 좋고, 전업으로 많은 사육 수수를 갖는 사람은 재실율(在實率)을 높이기 위하여, 즉 사육 중 도태·폐사에 따른 보충과 경제적 수명에 따른 갱신 계획에 의거 1년에 육추 횟수를 여러번 하여야 된다.

사육 수수가 많을수록 육추 횟수를 여러번 하여 보충하므로써 소득의 향상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 3. 병아리 구입과 선택

유전적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품종 또는 계통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 |              |              |                          |
|--------------|--------------|--------------------------|
| ① 강건성(强健性)   | } 산란 지수의 향상  | } 제란 1개당 생산비를 절감하는 우량 품종 |
| ② 다산성(多産性)   |              |                          |
| ③ 대란성(大卵性)   | } 사료 요구율의 개선 |                          |
| ④ 체소구성(體小軀性) |              |                          |
| ⑤ 조숙성(早熟性)   | } 육성비의 절감    |                          |

이러한 형질의 실제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강건성

초산 후 만 1년만에 생존율이 90% 이상되고, 경제적인 평균 수명이 15 개월 이상되는 항병성이 강한 종류를 선택할 것.

물론 건강의 유지는 사양 관리와 환경의 영향도 크다.

② 다산성

1 년간에 평균 산란 지수가 250 개 이상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대란성

알은 무거울수록 좋으며, 평균 60g 이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소구성

몸이 무거우면 유지 사료(維持飼料)가 많이 들며 제란 생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체구는 될 수 있는 한 가벼운 것이 좋다. 1.8 kg 정도의 것을 택할 것.

⑤ 조숙성

너무 조숙되면 알이 작고, 경제적 평균 수명이 짧을 염려가 있으나, 건실하게 육성되어 150 일 내외에서 균일하게 초산되는 것이 육성비가 적게 들고 자금의 순환이 빠르다.

이상과 같은 형질의 종류를 선택하므로써 생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다.

(1) 외국계와 국산계의 비교

일반적으로 국산계보다 외국계가 수익성이 높은 편이나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가금협회에서 4회에 걸친 경제 능력 점정 성적을 보면 대체로 알 수 있다.

생산 능력이 우수한 종류일수록 사양 관리와

환경이 좋아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량된 외국계에 대하여는 고도의 사양 기술과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만일에 농촌에서 부업 또는 겸업으로 과학적인 사양 관리를 못한다면 일반적인 재래계만도 못한 성적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시설, 사양(영양) 관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조건 외국계가 좋다는 사고 방식은 버려야 되며, 우리가 스스로 육종 개량에 적극 참여하고, 또 부화업자가 양심껏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여 주기 바란다.

(2) 신망있는 부화장에서의 구입

병아리의 양부(良否)는 외관상으로 유전적인 형질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큰 양계업자나 가금협회 또는 축산학자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직접 부화장에 가서 종계의 사양 관리와 위생 상태를 관찰하고 교잡 방법을 알며, 부화장의 위생 관리, 그리고 경영주의 운영 방침과 신망도를 측정 조사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다.

자기가 종계도 없이 여기 저기에서 종란을 모아서 부화하는 사람의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부화기 한대(단개)에 종계 1,000 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병아리 구입 신청은 미리하도록

신용있고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장에는 예약이 쇠도하므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육추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

(4) 병아리 값과 품질을 고려할 것.

●연재 : 기초 양계 강좌

병아리는 싼 것만을 찾지 말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질 즉 생산 능력이다. 병아리 한 파리의 값이 최저 60 원에서 최고 130원 정도이다.

만일 능력이 좋은 것을 최고 가격(130원)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알을 6개만 더 산란하면 병아리값은 보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폐사율·도태율·평균 경제 수명의 장단·대란성·조숙성·체소구로 인한 유지 사료의 질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값이 2~3 배의 가격이라도 좋은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한 일이다.

무조건 싼 병아리만 찾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니, 작은 돈을 아끼다가 큰 돈을 잃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화업자나 병아리를 사는 사람이 다 같이 새로운 인식 아래 숫자적인 증대보다 품질과 능력에 더욱 역점을 두기 바란다.

(5) 개체별로 보아 건강하고 충실한 병아리를 선택할 것.

- i) 병아리가 활기있고 배꼽이 잘 아문 것.
- ii) 털에 광택이 있고 눈이 총명한 것.
- iii) 몸이 충실하여 탄력성이 있는 것.
- iv) 기형이 아니고 몸의 무게가 무거운 것(대체로 38 g 이상인 것)
- v) 털에 알 껍질이 묻거나, 항문에 분비물이 붙지 않은 것.
- vi) 배가 정상보다 부르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Vii) 백색 래구혼은 털의 색이 노랗고, 유색 병아리는 광택이 나는 것.

ix) 먼저 깐 것을 선택할 것.

부화율이 좋을 때에는 먼저 깐 것이나 후에 깐 것이 크게 차이가 없이 건강하지만, 부화율이 좋지 못할 때에는 먼저 나온 것이 훨씬 강한 편이다.

ix) 약추는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많은 육추를 할 때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추는 어떤 원인(병 또는 환경)이 있는 것이므로 병이 아니더라도 육성 중 약해져 별도 관리·노력·약값 등에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후에는 병의 해개체가 된다.

그러므로 약추는 멧가없이 주더라도 가져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부업으로 소규모일 경우는 별개의 일이다.

X) 품종의 고유한 특징을 가질 것.

xi) 병아리의 난황의 소화 정도와 운반 시간을 고려하여 너무 시간이 경과된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난황 소화가 모두 된 것은 병아리의 체력이 소모되어 약하여진다.

이상 간단히 약술하였으나, 유전적으로 생산능력이 우수한 계통과 종계의 사양 관리의 철저·부화 기술 및 위생적 관리로 건강한 병아리를 선택하므로써 육추 중에 폐사와 도태가 없이 육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계가 된 후에도 생산능력을 올릴 수 있다.

미국테무라  
농장기술제휴

수 색 종 금 장

대 표 한 종 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색동291 (Tel 32-4654)